20170206 오늘의 기사

주제: AI에 주목하는 유통 업계

기사 요약: 엔디비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차세대 스타트업을 위한 엔비디아의 글로벌 프로그램 ‘인셉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전 세계 유통 분야 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선발, 지원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통 공급망,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분석 등 유통업계 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여러 산업에 AI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유통 분야에서도 AI가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98>

주제: 서버리스 컴퓨팅의 미래와 주목 이유

기사 요약: 프로그래머가 하드웨어 확장에 대해 고민할 필요를 줄여주는 혁신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패러다임인 ‘서버리스컴퓨팅’이 이벤트 지향 프로그래밍의 빠른 부상을 이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로 특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팀은 IaaS 업체에 하드웨어 관리를 맡기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IaaS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관리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구축방법으로 훨씬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서버리스 컴퓨팅은 피크 시간대에 몇 대의 가상머신이 필요한지. 이러한 시스템이 패치 되었는지, 시스템에 적절한 보안 설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전체적인 운용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드웨어에 대한 생각의 필요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확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개발자가 새로운 API를 게시할 경우 API 를 통해 기능을 업로드하고, 모든 서버 유지보수와 확장은 업체가 처리한다. 이후 IaaS업체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편함,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상적인 개발 환경이지만, 중요한 고민거리가 있다.

첫째, IaaS 업체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가진 기업의 경우, 각 기능이 개별적으로 업로드 되기 떄문에 기능들의 연계 동작을 소프트웨어 팀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셋째, IaaS 서비스 업체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가 인프라에 대해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기업에나 이익이 된다.

* <http://www.itworld.co.kr/news/103301>